



산의 바다 그 무량한 화엄법계



부석사 안양루에 오르면 백두대간 태백의 자경(紫鏡)이 눈부시게 펼쳐진다.



들배나무꽃



붉은머리오목눈이



천년고찰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경 연못

봉황산(鳳凰山) 부석사(浮石寺)가 자리한 양백지간은 장수왕 이후 한참동안이나 고구려의 지배를 받았던 땅이다. 순흥의 미아령 너머 영춘 땅에는 고구려 온달장군이 신라에게 빼앗긴 땅을 찾기 위해 쌓은 온달성이 있다. 이렇듯 신라 통일 직후까지도 양백지간의 정치적 상황은 반신라적이었다. 따라서 의상대사의 부석사 창건은 다분히 정치적 포석이었다.

부석사는 창건의 러브 스토리가 아름답고, 주위의 풍광이 아름답고, 가람의 모양새가 아름답다.

매표소를 지나면 은행나무 너머로 과수원이 넓게 자리하고 있다. 많은 이들은 봄날의 연분홍 사과꽃과 가을날의 빨간 사과 향기를 예찬하지만, 냉철히 들여다보면 이 과수원은 절골 숲을 망가뜨리고 들어선 불청객 같은 존재이다. 이 과수원 때문에 고즈넉하고 그윽해야 할 절골 분위기를 멋없이 허벌어져 버렸다.

조선 현종 때 나온 <순흥읍지>에 부석사 영지(影池)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일주문 아래쪽에 영지가 있어서 절의 누각 그림자가 거꾸로 비친다는 내용이다. 영지라면 분명 봉황산의 개울물을 담았을 터인데 아무리 둘러봐도 흔적을 찾을 길 없다.

일주문과 천왕문을 지나면 동안 제비꽃과 개별꽃 종류를 비롯하여 몇 종류 들꽃들이 여기저기 제멋대로 흩어져 피고 진다. 이 들꽃의 대부분은 삼산유곡이 아닌 인간의 간섭과 왕래로 인해 생태계가 교란된 풀밭에서 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부석사 석단들은 크고 작은 막들로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놀려있거나 빠져나온 느낌을 주지 않는다. 경사면을 깎지 않고 북돋워서 쌓은 석단에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선조들의 친환경적 의지가 담겨져 있다.

안양루에 오르면 백두대간 태백의 자경(紫鏡)이 눈부시게 펼쳐진다. 가히 산의 바다라 할 만하다. 눈에

보이는 저 산들이 모두 부석사 경내라는 착각이 그렇게 즐거울 수 없다. 한없이 광활하면서도 장쾌한 태백의 스카이라인! 비로소 막힘없고 걸림없는 극락에 와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그러나, 발밑의 부석사 형국을 보면 안타깝다. 풍수하는 사람들은 부석사가 앉은 형국을 서봉포란형(瑞鳳抱卵形)이라고 한다. 그런데, 봉황의 양쪽 날개인 좌우의 청룡백호가 과수원으로 개간되어 많이 훼손되어 있다. 숲이 망가진 청룡과 백호는 털 뽕뽕 봉황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석단

부드럽고 탄력적인 곡선미를 보여주는 무량수전의 배흘림기둥들은 느티나무와 소나무로 세운 것이다. 조선 초기만 하여도 소나무보다 느티나무나 참나무 같은 활엽수종이 대부분의 건축물에 쓰였다.

소나무가 건축물에 주재료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조선 중기부터이다. 그 무렵부터 소나무와 같이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수종이 차츰 번창하였다는 점도 있지만, 고려 말이나 조선 전기의 기후가 지금보다 더욱 더습하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부석사의 가람배치는 '화(華)'자 모양을 많이 닮아 있다. 천왕문에서 무량수전을 잇는 선을 중심축으로 하여 좌우 공간에 석탑과 전각들이 질서정연하게 앉아 있다.

그런데, 고개를 가우똥하게 하는 것은 부석사의 유구한 역사와는 달리 경내에 이렇다 할 노거수가 없다는 점이다. 나무들이 아름다운 전각들을 가리기 때문에 일부러 없애버렸는지, 기껏해야 무량수전 마당 한 칸의 들배나무, 첫 석단 앞의 찰피나무(보리수)와 벽오동, 쌍탑 옆의 산수유, 선묘각 앞의 밤나무, 조사

색이며, 두 눈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

조사당 처마 밑에 전설의 선비화(仙扉花)가 자라고 있다. 학명으로 팔담초라고 한다. 팔담초는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목본으로, 반음지에서 잘 견디고, 토양에 대한 적응성도 높다. 물도 없고 햇볕도 들지 않는 조사당 처마 밑에서 수백년을 연명해 올 수 있었던 것도 그때문이다.

조사당 옆 작은 화단에 꽃들이 만발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모두가 외래원예종 꽃들이다. 전통사찰

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생동맞은 꽃밭은 경내 여기저기에 조성되어 가는 곳마다 눈에 밝힌다. 전통사찰은 전통적인 식생조경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전각과 당우가 아무리 고색창연하다고 해도 주변 식생이 고유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전통 가치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무량수전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줄참나무는 키가 20미터를 웃도는 키다리 나무이다. 나무 겹질은 연한 잿빛이며 세로로 꼴이 파져 있다. 참나무 종류

당 앞 선비화 등이 고작이다. 선비화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50년생 인파의 중년 나무들이다.

얼마 전까지 뜬바위(浮石) 옆에 산벚나무가 있어서 봄철이면 꽃을 피워 탐방객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었는데, 언젠가 베어져 보이지 않는다. 삼층석탑을 지나 조사당과 자인당으로 오르는 숲 바닥에는 조릿대가 넓게 자리하고 있다. 뒷새인 붉은머리오목눈이들이 여기저기서 푸드덕 날아다닌다. 붉은머리오목눈이는 온몸이 황갈색에 가까운 붉은

가운데 잎이 가장 작고, 잎 가장자리에 갈고리 모양의 톱니가 나 있다.

건축에 쓰이는 '못' 하면 쇠로 만든 못을 쉽게 떠올리지만, 원래 못의 원조는 나무못이었다. 일교차가 심한 산중의 사찰건축에 줄참나무못을 많이 썼고, 바닷물과 풍랑을 견뎌야 하는 군선(軍船)에서는 박달나무못을 썼다고 한다.

지장전 뒤에 샘이 하나 있다. 물 속에 도롱뇽과 개구리가 알을 낳아놓았다. 일부는 새끼들이 부화해 고물거리고 있다. 주위의 다른 물길과 연결되지 않은 샘이라 그들이 살아가기엔 너무 좁고 협소한 환경이다. 특히 도롱뇽은 환경오염과 변화에 대한 내성이 약해서 이곳에서 언제까지 연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장전 옆으로 흐르던 산길에 원국사비와 부도전과 승방까지 이어져 있다. 산길 아래로는 사하촌의 드넓은 과수원이 펼쳐져 있다. 부석사 주변의 곤충상이 다른 절에 비해 빈약한 것도 과수원이 주는 반생태적 환경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부석사는 아름다운 절이지만, 반면에 눈에 밝히는 것도 많다. 몇 해 전에 들어선 절 입구의 연못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각종 분수와 휘황찬란한 조명과 갖가지 인공구조물은 1천 5백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전통사찰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도시공원이나 야파트론에나 있을 법한 연못이다. 공무원들의 발상이 라지만 '연못을 조성하기 전에 부석사에서 강력한 의사표시만 있었더라...' 하는 아쉬움이 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반환경적인 폭포와 연못을 만드느니 차라리 돈으로 옛 영지를 찾아서 복원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을까. 참으로 답답한 처사들이다.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진입로 과수원 절골 분위기 해친 불청객 막들로 쌓은 석단은 자연스런 멋 일품 유구한 역사에 비해 경내에 노거수 없어 입구 인공 구조물에 천년고찰 '무색'

고 단 한 인 생 의 등 짐 을 받 쳐 주 는 '작 대 기' ● 내 삶 의 진 정 한 응 원 꾀 '작 대 기' ● 지 친 삶 에 활 력 을 주 는 감 동 의 이 야 기 들 '작 대 기'

푸른 감동을 선사하는 이야기 잔치

인생의 다리를 가장 수월하게 건너는 법 =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영국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서 수도인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묻는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비행기를 이용해서', '기차를 이용해서'... 많은 답이 제시되었지만 당선된 작품은 '좋은 동반자와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지루한 여행일지라도 좋은 동반자와 함께 하는 시간은 행복한 시간입니다.'



인생의 여행에서 좋은 동반자를 만나는 것, 진정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풍경소리>의 작가 장용철이 드리는 지혜의 선물

동서고금의 성현들이나, 이름 없이 살다간 많은 분들이 작대기처럼 죄다가 남겨놓은 이야기들. 험난한 구석에 지게와 함께 나란히 반쳐 놓은 작대기처럼 인생의 힘이 되는 '작대기' 같은 이야기들을 한데 모았다.

양장본 / 164쪽 / 값 9,000원 / 도서출판 **여시아문**

▶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연수원) 연수동 309호 도서출판 '여시아문'
Tel: 02)2004-8225(출판부), 02)2004-8292(영업부), Fax: 02)2004-8297



글_장용철 / 그림_고함 창병례

고 단 한 인 생 의 등 짐 을 받 쳐 주 는 '작 대 기' ● 내 삶 의 진 정 한 응 원 꾀 '작 대 기' ● 지 친 삶 에 활 력 을 주 는 감 동 의 이 야 기 들 '작 대 기'